**2013 Invitational art Exhibition of Oksanglim (Nowon Arts Center, Seoul)**

**지금 혹은 당대, 임옥상을 위하여
김정환 (시인)**

 세상이 색과 모양의 합으로 한없이 깊어지는 평면으로 보일 때, 그것이 말과 글의 언어 구성체보다 더 편한 언어구성제로 느껴질 때, 자신의 예술 행위를 통해 그것을 말과 글의 언어 구성체 너머 언어구성제로 재창조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화가적인 인간은 화가로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처음부터 의식적인 것도 아니고 뒤늦게 의식적일 필요도 없으며, 다만 이러한 여러 단계 혹은 여러 겹 운명 경험은 사회 경험보다 말 그대로 더 근본적이고 더 최종적이라는 점이다.

 훌륭한 예술가랑 사회의식이 새로운 예술언어를 만드는 것보다 예술 언어가 새로운 사회의식을 만드는 면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특히 음악과 미술의 고전 언어는 역사발전의 독특한 산물이고, 예술 언어를 억압하는 역사발전이란 어불성설이다. 사실 예술 언어를 억압하는 사회의식이란 것도 없다, 혹시 있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시사적 관점에 지나지 않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초기작을 철부지 시절 것으로 치부하는 화가가 위대해지기 힘들다는 말에 수긍할 수도 있고, 화가의 꾸준한 노력에 격려를 보낼 수도 있고, 비약적인 발전에 경악의 찬사를 보낼 수도 있다.

 임옥상은 사회의식과 사회활동이 폭넓은 미술가로 정평이 나 았지만, 내가 보기에 더 중요한 점은, 불안한 근대 혹은 근대라는 불안을 단칼에 장악해 들어가는(여기서 근대를 ‘모던’ 이란 말로 바꾸어도 되겠다.) 그의 미학 언어가 초기작 이래 그 숱한 소재 및 규모의 변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신의 ‘그때그때 사회적 사태’에 대한 사회적, 예술 ‘포기’ 선언을 포함한 열혈 발언과 상관없이, (그는 미술에서 금과옥조로 내거는 개성이니 독창성이니 상상력이니 하는 말조차 거부하려 든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임옥상이야말로 개성적이고 독창적이며 상상력이 남다른 화가가 아니겠는가. 미술평론가 김윤수,)

 그러니까 의식, 무의식으로, 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꾸준한 노력 속에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여러 차례 누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민중미술사는 물론 한국현대미술가 전제를 역동시키는 가장 역동적인 한 축이다. 액션페인팅 기법으로 한국전통의 탈 형용을, 혹은 탈 형용으로 액션페인팅 기법을 흡수해버리는 자유의 과감, 여성 누드를 야수파 너머로 밀어붙이는 정신의 육박, 식민지 극복의 고추의 묶음에서도 형식미를 놓치지 않는 예술의 집요, 그리고 자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조화 혹은 분열의, 관계 혹은 혼융의, 심화 및 확대, 공공의 안팎과 기타, 현현과 절규, 보리밭, 나무, 종이 등이 서로 살을 섞으면서 서로를 살 찌우고 공공미술 속으로, 바야흐로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화’ 하는 와중 오히려 역사와 자연이 흙으로 쇠로, 물과 불로 원소화하는 동시에 심화한 원소들의 변증법으로 역사와 자연을, 인간-역사의 자연적 질과 자연의 인간-역사적 질을 높여 이제까지의 그 파란만장하고 유장한, 참으로 임옥상적인 임옥상 미술 ‘생애’를 겪으며 또한 더 깊고 더 역동적으로 발전할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